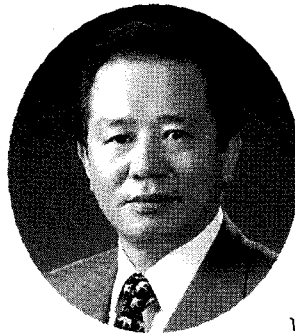


# ‘플라스타’ 사업비중 점차 늘릴 계획

올해 PET 2호기 도입, 필름생산

**1976년 설립, 농업용필름 생산**  
 농업용 필름생산을 모체로 태동한 태광수지공업(주)은 지난 1976년 창립이래 ‘고객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축적된 기술, 풍부한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82년 9월 PE필름에 K.S.마크를 획득한 태광은 92년에 지금의 충주공장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더욱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96년 ‘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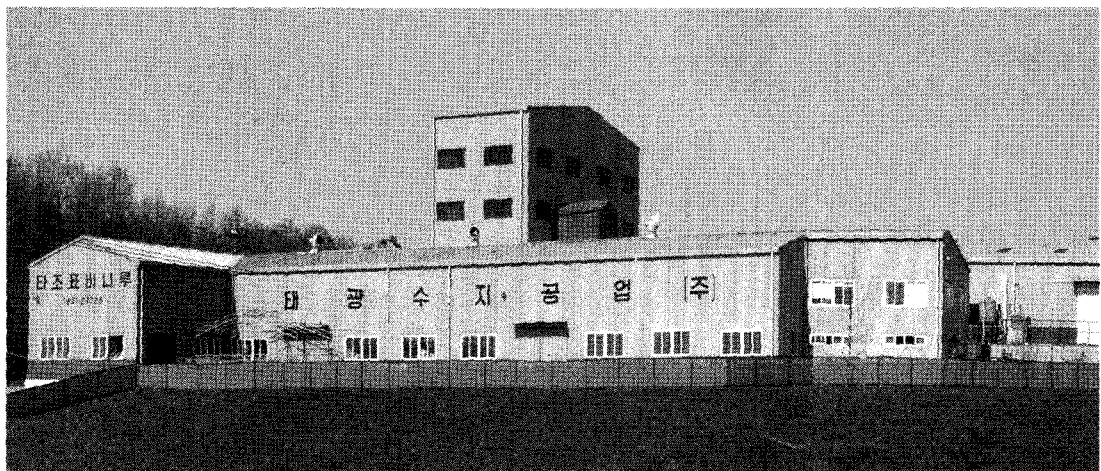


▲ 태광수지공업(주) 신진문회장

타’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PET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타조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태광의 대표적인 농업용 필름인 삼중보온장수필름은 내·중·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구성·보온성·무적성을 보강하여 하나로 형성된 필름이며 내외피용으로 모두 사용할수 있어 용도가 광범위하다.

삼중장수 필름은 일반 장수필름과 달리 최신



▲ 태광수지공업공장 전경

삼중기계에서 삼층으로 제조되어 보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투명성이 좋아 광선 요구량이 많은 작물재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장수필름, E.V.A 필름, 멀칭용필름 등 다양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저희 태광수지공업은 PE농업용 필름생산을 시작으로 설립되어 20여년의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유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PET사업을 시작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 기획과를 신설하여 관리기획, 생산기획, 영업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하는 김장태 차장은 이 회사의 창립멤버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고있다.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본격 생산**

최근 플라스틱라는 상품명으로 본격 판매에 들어간 태광은 지난해 초순 설비를 들여와 생산에 들어갔으나 지난해는 주로 테스트를 하는 기간으로 삼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의 이스트만화학으로부터 PET-G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받아

[표 1] 장점비교

구 분	PLASTAR*	PMMA	PC
충격강도	000	0	0000
열저항성	00	000	0000
내화학성	0000	0000	0
공기차단성	0000	00	0
광투과성	0000	0000	0000
화재 저항성	000	0	0000
UV저항성	00	0000	00
성형시 건조 불필요	000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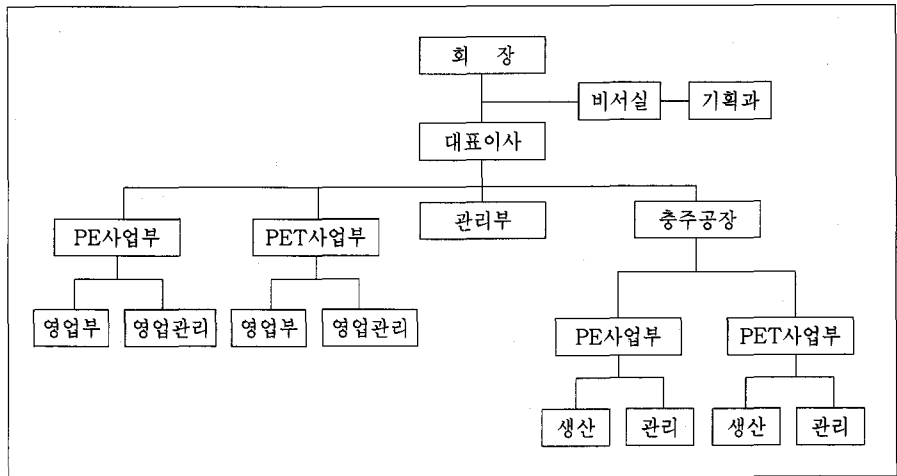
• 아주우수함0000, • 좋음 000, • 보통 00, • 나쁨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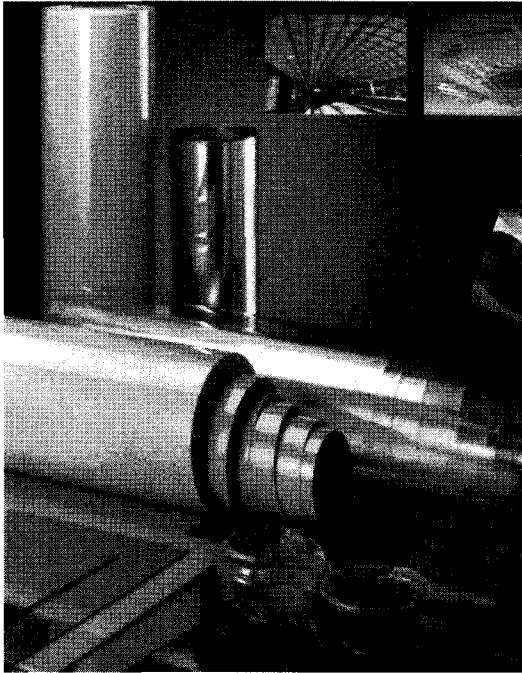
생산하는 태광은 PET의 수요를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용도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플라스타는 기존 PET와는 달리 내충격성 탁월, 투명도 우수, 표면광택 우수, 가공성 우수, 공기차단성 우수, 자외선 차단 of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광고물, 건축용, 식품용기, 의료기기 포장, 농업용등 산업전반으로 예상되는 적용용도가 다양하다.

특히 식품포장용으로서의 적용이 기대되는데

[그림]조직도





▲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될 태광의 PET시트

태광의 제품은 FDA와 US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기존 PET의 단점이었던 봉인성과 성형·기계 가공성을 개선했을뿐만 아니라 광학적 특성, 수분 및 가스차단성, 강도 등이 PVC 및 여타 경쟁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UV처리로 자외선을 차단시켜 줌으로써 식품의 비타민 파괴를 막아주고 장기간 변색변질을 방지해 장류용기로서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빛과 향기의 차단성이 우수하며 투명성과 접합성이 뛰어나고 에틸렌 옥사이드와 감마선 또는 전자선 살균이 가능하므로 의약품 포장용기 및 기기보관함 용도로도 새롭게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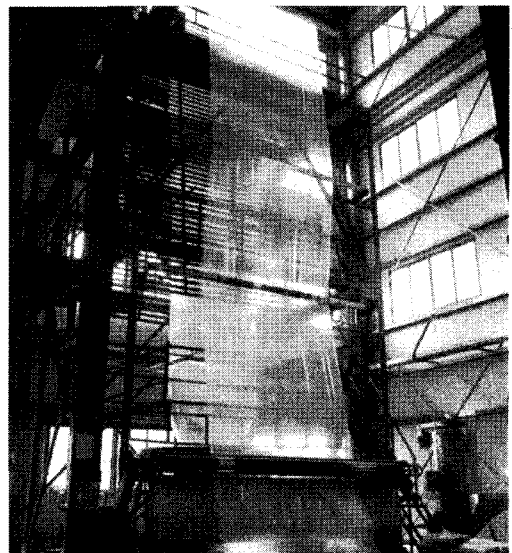


### 업계공동발전 협동강조

태광의 신진문 대표이사는 업계에 들어선지 22년째로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단체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펼치고 종업원들에게도 늘 협동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이면 PET라인 2호기가 도입됩니다. 2호기는 1호기와는 달리 시트와 같은 두꺼운 품목만이 아닌 필름제품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제품은 레진이 수입되다 보니 단가가 비싼 것이 단점인데 이 문제는 대량생산 될 경우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PET시장은 3천억원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황금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저희 태광은 계속



▲ LDPE용 압출기

(표 2) 보유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제 작 자	
			구 분	제 작 자 명
LDPE용 압출기	130MM(MID)	1	국 산	신화기계
	110MM(IN)		외 산	
	110MM(OUT)			
LDPE용 압출기	160MM	1	국산 외산	신화기계
LDPE용 압출기	160MM	1	국산 외산	삼영기계
LDPE용 압출기	130MM	1	국산 외산	삼영기계
LDPE용 압출기	100MM	1	국산 외산	신광기계
LDPE용 압출기	100MM	1	국산 외산	삼영기계
압출기 펠렛기		1	국산 외산	한국산업기계
권취기		2	국산 외산	한국산업기계
HDPE용 압출기	70MM	1	국산	극동기계
	50MM		외산	
HDPE용 압출기	65MM	1	국산 외산	유성기계
HDPE용 압출기	55MM	1	국산 외산	경일기계
압출기 배합기 외		139	국산 외산	한국산업기계외
PET용 압출기	120MM	1	국산 외산	이태리 OMIPA
	75MM	1		
	35MM	1		
PET용 설비	스릿타	1	국산	신원기계
	분쇄기	1	외산	대운정밀
합 계		156		

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할 것입니다.”라고 짧게 사업계획을 밝히는 신 회장은 앞으로 판매는 주로 대리점을 통하고 본사에서는 용도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 OPP를 막론하고 필름시장이 혼란기를 맞고있는 시기다. 대기업들의 필름사업 참여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몸살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태광의 과감한 시도는 지켜볼 만 하다.

아무리 치열한 상황이라 해도 우수한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유저에게 공급한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수 있을 것이며 수출시장의 장벽을 빨리 깨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여 진다. [K]

이선하 기자